

여수서 한·독 청소년 평화연주회 열린다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독 합동 평화연주회가 열린다.

7일 비영리단체 한·독아인하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모여 오는 9일 "2019년 평화통일 공감 메아리"를 주제로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독일 통일 30주년의 기운을 안고 35명의 독일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원들과 14명의 연주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여수 예술마루와 DMZ 인근에서 잇따라 펼친다.

특히 이번 연주회를 통해 베를린 국립음대 라이너 펠트란 교수의 창작곡 '임진', 조승필 작곡가와 고종환 시인이 함께 만든 '통일아리랑'이 초연된다.

한·독 합동 오케스트라단원들은 9일 여수 예술마루 공연에 이어 11일 여수 흥곡사, 14일 파주 DMZ 인근 도라산 공원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유진양상블이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과 '신아리랑'을, 여수어머니리코더합주단이 '고향의 봄', '사랑으로', '셀 아이 슈' 등을 연주한다. 조지 드레퓌스가 작곡한 '백을 넘어서'와 세계적 인 작곡가 요스트 리블레히트가 직접 지휘에 나서 '신포니 2번'을 선보인다.

소프라노 박소은이 '그리운 금강산'을, 이어 국악소녀 윤로사와 함께 '통일아리랑'을 부른다.

이밖에 영화 '해리포터', '포레스트 검프',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제음악

을 선사한다. 한·독아인하이트 이은주 대표는 "비영리단체로서 이번 연주회를 꾸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줘 일정을 준비할 수 있었고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대구시 청소년 5명이 이번 연주회에 동참해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를 주제로 한 연주회를 맡겨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평화연주회를 위해 여수시 등 관련 기관과 여수국가산단 기업,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내일 예술마루서 '평화통일 공감 메아리' 주제 창작곡 '임진' 등 초연...대구 학생들 5명 동참



지난 3일 여수에 도착한 독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여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데 모여 오는 9일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는 합동공연에 앞서 연습을 하고 있다.

'판소리 본향' 구례동편소리축제 성료

전통·현대예술 접목 다양한 프로그램 갈채

전통과 현대예술을 접목한 2019 구례 동편소리축제와 제23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구례동편소리축제는 그동안 동편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 온 분향당계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줬다.

개최절인 지난 3일에는 구례5일시장에서 거리공연이 열려 5일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의 시작을 한껏 즐겼다. 풍물패의 길놀이부터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버블쇼, 신나는 미술과 아바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4일에는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 등 동편제 거장과 국악인을 기리는 추모제와 개막제가 이어졌다.

올해 개막제는 '물과 소리 그리고 바람'을 주제로 서시천 체육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려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구례합창단, 구례전수음악길놀이, 거석마을 전래민요, 동편제 판소리 쏘나무 등 구례의 실력 있는 예술인들

이 무대를 빛냈다.

5일에는 전남 3대 프리마켓 중 하나인 구례 프리마켓 공장과 읍·면 농악단의 신명나는 공연 한 판이 함께 열렸다. 색다른 아이টে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풍장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공연을 함께 구경할 수 있어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어 양연자 스승과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공연도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

다. 구례의 어린이들이 보여준 귀엽고 아기자기한 가야금 병창과 양연자 스승이 보여준 가야금 병창은 많은 관객들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 5일과 6일 이틀간 펼쳐진 제23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207명이 출전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강민지씨가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1,500만원을 받았고, 고수 부문 일반부에서는 박동호씨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구례 동편소리축제와 제23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구례군 제공

광양 공간정보 발표대회 4년 연속 입상 쾌거

광양시가 전남도에서 주관한 '2019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공간정보 분야 4년 연속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최근 열린 워크숍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전남도 및 시군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2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와 특강 등을 통해 도내 시·군간 정보교류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시 공간정보의 내일'이란 주제로 광양시 공간정보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한 개별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품질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해 우수에 채택됐다.

광양시 이주옥 정보통신과장은 "내년에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구축된 상·하수 데이터의 오류 정비 등 최신 공간정보 제공과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곡성 찰린지마켓 인피오라타가 지난 6일 퍼레이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곡성군 제공

곡성 찰린지마켓 인피오라타 막 내려

작품구성부터 해체까지 주민 직접 참여

형형색색 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곡성 찰린지마켓 인피오라타가 지난 6일 퍼레이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꽃길은 곡성삼정축제 기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년찰린지마켓 제2기 출범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조성됐다. 주민들은 작품을 만들 때부터 작품 해체까지 손을 보며 참여의 기쁨을 나눴다.

특히 지역 초등학생들로 이뤄진 오케스트라의 피날레 공연은 서툴지만 뜻뜻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미소를 짓게 했다. 연주가 끝나고 방문객들은 꽃 한송이를 들고 꽃비를 맞으며 인피오라타 꽃길을 걸었다.

행사에 참여한 유근기 곡성군수는 인피오라타의 마지막 아름다운 음악으로 장식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찰린지마켓 청년대표와 행사에 함께 해 준 모든 사람들의 앞날이 꽃길만 같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 체육대회 당원 등 3,500여명 참석...총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승남)가 '2019 당원교육 및 단합체육대회'를 갖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 5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승남 지역위원장을 비롯, 우원식 전 원내대표,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철우 보성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김성전 장흥군수, 4개지역 도의원, 군의원, 당원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더 중요한 일이다"며 "당원들이 앞장서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아베정권이 일으킨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가도록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여수 상포지구 비대위, 피해 보상 청구

〈속보〉 여수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포지구비대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준공 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위법과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미흡하고 형사적인 처벌이 제외돼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포지구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당시 행정의 책임자였던 주철현 전 여수 시장은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담당 공무원 3명도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입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곡성 청년농업인 전문가 현장상담 성료

곡성군이 최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 멘토 3명과 담당공무원이 16명의 청년 농가를 방문

해 영농지도 활동을 펼쳤다. 농업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경영장부 사용 등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농업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보성 읍어면 의용소방대원 태풍피해 복구

보성군 읍어면 남면 의용소방대는 최근 급전리 광천마을에서 침수주택 복구 활동을 벌였다. 읍어면 남면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8호 태풍 미탁 피

해현장인 광천마을을 찾아 침수가옥 토사제거와 가재도구 세척, 마을주변 환경 복구를 돕는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대 위풍당당 취업컨설팅 실시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최근 학생 취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위풍당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성향을 녹여내어 작성하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이미지 컨설팅 ▲특별 모의면접 등이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